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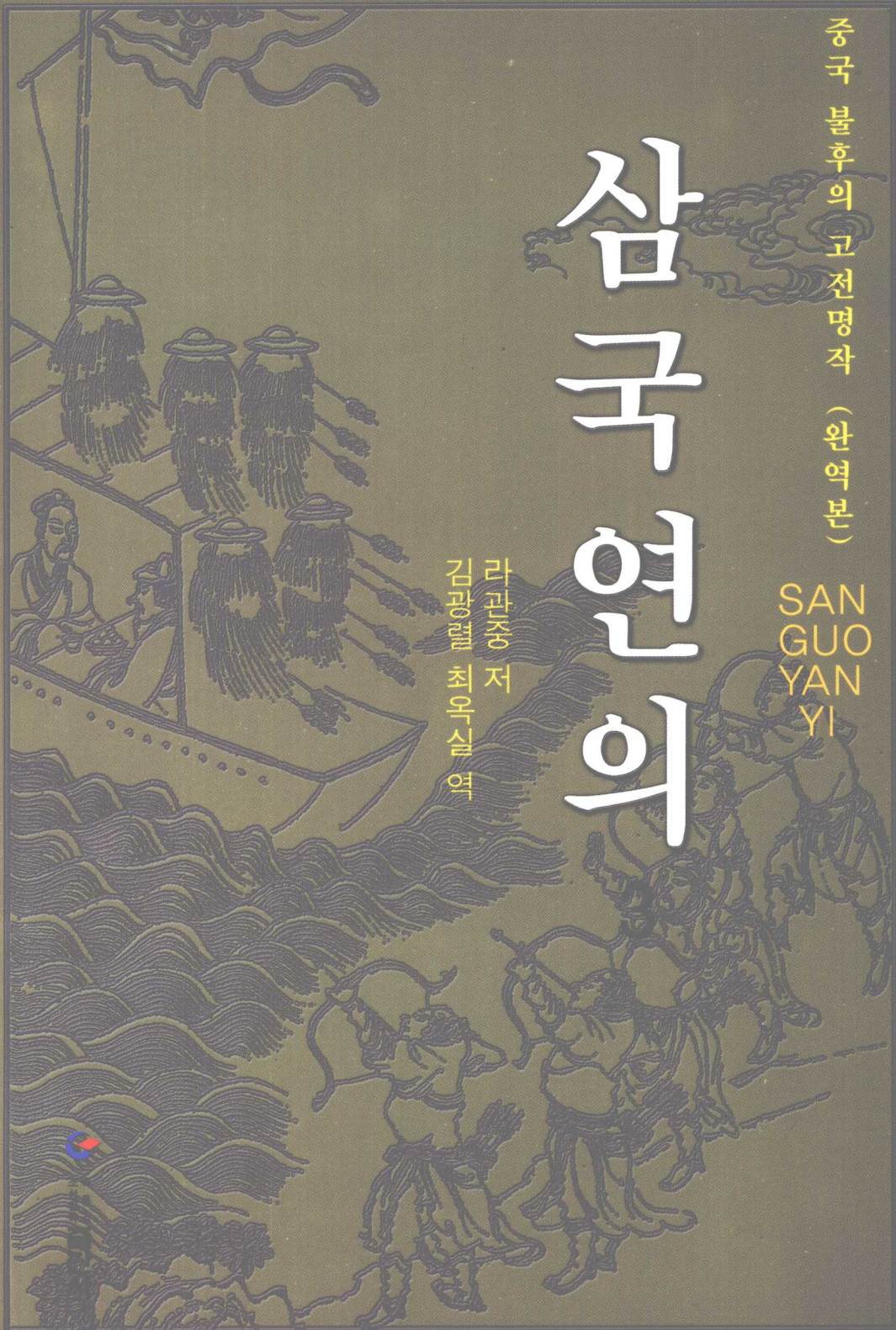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SAN
GUO
YAN
YI

삼국연의

라관중 저

김광영 역 최옥실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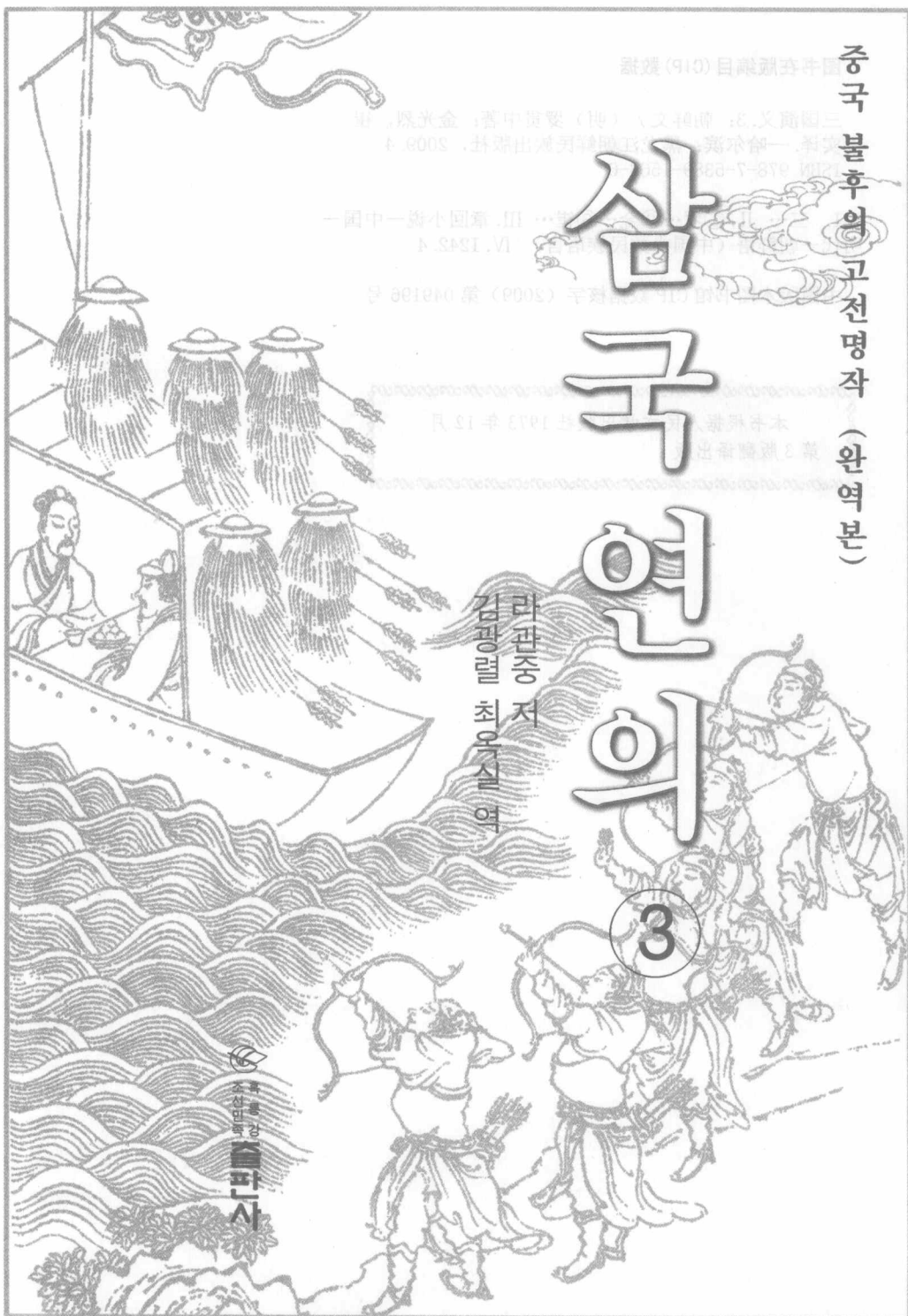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삼국연의

3

라관중 저
김광렬 최옥실 역

조선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三国演义. 3: 朝鲜文 / (明) 罗贯中著; 金光烈, 崔玉实译.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4
ISBN 978-7-5389-1568-6

I. 三… II. ①罗…②金…③崔… III. 章回小说—中国—明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2.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9) 第 049196 号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 1973 年 12 月
第 3 版翻译出版

차 례

- 제 61회 조운은 배를 막아 아두를 빼앗고
손권은 글을 보내 아만을 물리치다 /1
- 제 62회 양희와 고파는 부관에서 머리를 드리고
황충과 위연은 락성에서 공을 다투다 /17
- 제 63회 제갈량은 방통을 통곡하고
장익덕은 엄안을 의로 놓아준다 /33
- 제 64회 공명은 계책을 정해서 장임을 사로잡고
양부는 군사를 빌어 마초를 격파하다 /50
- 제 65회 마초와 장비가 가맹관에서 크게 싸우고
류비는 스스로 익주목을 거느리다 /65
- 제 66회 관운장은 칼 한자루 들고서 모꼬지에 나가고
북황후는 나라를 위하다가 목숨을 버리다 /83
- 제 67회 조조는 한중땅을 평정하고
장료는 소요진에서 위엄을 떨치다 /101
- 제 68회 감녕은 기병 일백여명으로 위군병영을 기습하고
좌자는 술잔을 던져 조조를 희롱하다 /117
- 제 69회 관로는 주역을 짐쳐서 천기를 알고
다섯 신하는 역적을 치다가 충의에 죽다 /132
- 제 70회 맹장 장비는 지혜로 와구관을 취하고
로장 황충은 계책으로 천탕산을 빼앗다 /147
- 제 71회 황충은 대산을 차지하고 편히 앉아서 적이 피로하기를 기다리고
조운은 한수를 의지해서 적은 군사로 대병을 이기다 /162
- 제 72회 제갈량은 한중을 지혜로 취하고
조아만은 야곡으로 군사를 물리다 /179

- 제 73회 현덕은 한중왕의 위에 오르고
운장은 양양군을 쳐서 뺏다 /193
- 제 74회 방령명이 관을 지우고 결사전을 벌리고
관운장이 강물을 터서 칠군을 엄살하다 /208
- 제 75회 관운장은 뼈를 끊어 독기를 다스리고
려자명은 백의로 강을 건느다 /222
- 제 76회 서공명은 대관으로 면수에서 싸우고
관운장은 패해서 맥성으로 달아나다 /234
- 제 77회 관운장이 옥천산에 신령으로 나타나고
조조가 락양성에서 감신하다 /248
- 제 78회 명의는 풍병을 고치다가 비명에 죽고
간웅은 유언을 전하고서 세상을 버리다 /262
- 제 79회 형이 아우를 핍박하니 조식은 시를 읊고
류봉은 조카로서 삼촌을 함해하고 처형을 당하다 /275
- 제 80회 조비가 헌제를 내쫓고 한나라를 빼앗으니
한중왕은 제위에 올라 임금의 대통을 잇다 /289
- 제 81회 장비는 형의 원수를 급히 갚으려다 해를 입고
현덕은 아우의 원한을 풀려고 군사를 일으키다 /303
- 제 82회 손권은 위에 항복하여 구석의 특전을 받고
류비는 오를 치고 룡로군을 상 주다 /316
- 제 83회 류비는 효정에서 싸워 원수들을 잡고
서생은 강구를 지키다가 대장이 되다 /330
- 제 84회 룡손은 칠백리 진영을 불사르고
공명은 공교하게 팔진도를 배포하다 /348
- 제 85회 류비는 조서를 내려 타고를 하고
제갈량은 편히 앉아서 오로병을 평정하다 /364
- 제 86회 진복은 재치있는 구변으로 장운을 힐난하고
서생은 화공전술로 조비를 깨뜨리다 /381

제 61 회

조운은 배를 막아 아두를 빼앗고
손권은 글을 보내 아만을 물리치다

이때 방통과 법정이 현덕을 보고 주연석에서 류장을 죽이면 서
천을 힘 안 들이고 얻을수 있다 권하니 현덕이 말한다.

“내가 지금 촉 땅에 들어와서 은혜와 신의가 아직 서지 못하였
으니 이 일은 결단코 행할수 없소.”

두 사람은 재삼 권하여 보았으나 현덕은 종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 현덕은 다시 류장과 성안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피차에 진정을 털어 이야기하며 정의가 자못 극진하다. 이렇게 술
이 거나해졌을 때 방통은 법정과 더불어 의논한다.

“사태가 이미 이에 이른바에야 주공 처분만 바라고있을수 없
소.”

즉시 위연을 불러서 당우에 올라가 칼춤을 추다가 틈을 봐서
류장을 죽이라고 일렀다. 위연이 드디어 칼을 빼어들고 앞으로 나
가서 말한다.

“주연에 아무 즐길만한거리가 없으니 제가 한번 칼춤을 추어
놀아볼가 합니다.”

방통은 곧 여러 무사들을 불러들여 당아래에 늘어세우고 오직
위연이 손 쓰기만 기다린다. 류장수하의 여러 장수들을 보니 위연
은 술자리에서 칼춤을 추고 계단밑의 무사들은 칼자루에 손을 대고
당우를 뵈히 쳐다보고들 있다. 종사 장임이 또한 칼을 빼어들고 춤
을 추며 말한다.

“칼춤에는 반드시 짝이 있어야 하니 제가 한번 위장군과 같이 추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술상앞에서 마주서서 춘다. 위연은 류봉에게 눈짓을 하자 류봉이 또한 칼을 뽑아들고 춤을 돕는다. 이것을 보고 류쾌, 령포, 등현이 저마다 칼을 빼여 손에 들고 나선다.

“우리들이 한번 칼춤을 추어 웃음을 도울가 합니다.”

현덕은 크게 놀라 급히 좌우에 차고있는 칼을 빼여 손에 들고 자리에 일어서서 호령한다.

“우리 형제가 서로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무슨 의심하고 꺼릴 일이 있을것이며 또한 홍문연(鴻門宴)이 아니어든 칼춤을 취서 무엇 하겠느냐? 칼을 버리지 않는자는 그 자리에서 참하리라!”

류장이 또한 꾸짖는다.

“형제가 서로 모인 자리에 칼들은 무엇하러 차고있느냐?”

그리고 호위군사들에게 명하여 허리에 찬 칼들을 모조리 끌러 놓게 하였다. 모든 사람이 분분히 당에서 내려간다. 현덕은 여러 장수들을 다시 당우로 불러올려서 술들을 내리고 말하였다.

“우리는 동종골육이요, 함께 대사를 의논하는터에 두 마음이 있을턱이 없다.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라!”

모든 장수들이 다 절을 하고 사례한다. 류장은 현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형님의 은혜는 맹세코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단란히 술들을 마시고 어두워서야 헤어졌다. 현덕은 병영으로 돌아오자 방통을 보고 책망하였다.

“공들은 어째서 류비를 불의에 빠뜨리려 하오. 이후로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마오!”

방통은 탄식하고 물리갔다.

한편 류장이 병영으로 돌아가니 류쾌의 무리가 권한다.

“주공께서는 오늘 석상의 광경을 보셨습니까? 일찍 돌아가셔서 후환이 없게 하시는것이 좋을가보이다.”

류장이 말한다.

“우리 형님 류현덕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분이야!”

여러 장수들이 다시 말한다.

“비록 현덕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어도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서천을 먹여치우고 부귀를 도모하려 하고있으니 말씀입니다.”

그러나 류장은 말한다.

“그대들은 우리 형제사이의 정을 리간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끝내 듣지 않고 매일 현덕과 흥금을 털고 이야기하는것이다. 그러자 문득 보하되 장로가 군사를 정돈해서 가맹관(葭萌关)을 침범하려 하고있다 한다. 류장이 곧 현덕에게 가서 막기를 청하니 현덕은 쾌히 응낙하고 그날로 본부 군사를 령솔하고 가맹관을 향하여 떠났다. 모든 장수들이 류장을 보고 권한다.

“대장들로 하여금 각처 관문을 굳게 지켜서 현덕의 병란을 방지하게 하십시오.”

류장이 처음에는 듣지 않았으나 뒤에 여러 사람이 하도 간절히 권하는바람에 마침내 백수도독(白水都督) 양회(杨怀)와 고쾌(高沛) 두 사람으로 하여금 부수관(涪水关)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성도로 돌아갔다. 현덕은 가맹관에 이르자 군사들을 엄하게 단속하며 널리 은혜를 베풀어서 민심을 얻기에 힘썼다.

이때 정탐이 이 일을 알아다가 동오에 보하였다. 오후 손권이 문무관원들을 모아놓고 상의하는데 고옹이 나서서 계책을 드린다.

“류비가 이제 군사를 나누어 멀리 산간벽지로 돌아갔으니 졸연히 돌아오지 못할것입니다. 이때를 타서 일지군을 보내 먼저 서천 어구를 막아 그의 돌아올 길을 끊은 다음에 동오군사를 모조리 일으킨다면 가히 한번 북쳐서 형양지방을 평정할수 있을것이니 이는 결코 놓쳐서는 아닐될 기회입니다.”

손권이 듣고 말한다.

“이 계교가 참으로 묘하오.”

이렇게 상의하는중에 별안간 병풍뒤에서 한 사람이 큰소리로 꾸짖는다.

“이 계교를 드린자는 목을 베야 하느니라. 그래 내 딸의 목숨을 해치려든단 말이나!”

모두 놀라서 쳐다보니 곧 오국태다. 국태가 노기를 띠고 말한다.

“내 평생에 오직 딸 하나를 두어 류비에게 출가시켰는데 이제 만약 군사를 움직인다면 내 딸은 어떻게 되란 말이고?”

말하고나서 손권을 돌아보며 꾸짖는다.

“내가 부형의 기업을 이어 앉아서 팔십일주를 거느리고있으면서 그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이제 작은 리익을 탐내서 골육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나!”

손권은 연송 “네, 네.” 대답하며 “모친의 말씀을 어찌 감히 어기오리까?” 하고 드디어 여러 관원들을 꾸짖어 물리쳤다. 오국태가 한을 품고 들어간 뒤 손권이 대청끝에 서서 혼자 속으로 (이 기회를 한번 잃고보면 어느날에나 형양을 얻을지 모르는데...) 하고 깊이 생각하고있는중에 문득 장소가 들어와서 묻는다.

“주공은 무엇을 근심하고계십니까?”

손권이 대답한다.

“아까 일을 생각하고있었소.”

장소가 계책을 말한다.

“이는 지극히 용이한 일입니다. 이제 심복장수 한명을 시켜서 군사 오백명만 거느리고 몰래 형주로 들어가서 일봉 밀서를 군주에게 전하게 하시되 국태께서 병환이 위중하셔서 따님을 보고싶어하신다 하고 곧 밤을 도와 군주를 동오로 모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현덕이 평생에 아들 하나를 두었을뿐이니 그 아이를 데리고 오시게 하면 그때는 현덕이 필연 형주를 가지고 아두와 바꾸려들것ियो.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군사를 움직이더라도 다시 무슨 구애할것이 있겠습니까?”

듣고나자 손권이 말한다.

“이 계교가 대단히 묘하오. 내게 한 사람이 있으니 정은 주(周)요, 이름은 선(善)이라 매우 담력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내 집에 통내외하고 드나들며 우리 형님을 많이 쫓아다니던 사람이요. 이번에 그를 보낼가보오.”

장소는 일러준다.

“이 일을 결코 루설하셔서는 아니됩니다. 이길로 곧 떠나게 하시지요.”

이에 손권이 주선을 비밀히 보내는데 군사 오백명을 상인모양을 꾸며서 배 다섯척에 나누어 태우고 수색을 당할 경우를 생각해

서 거짓 국서(國書)를 한통 준비하고 배안에는 몰래 병장기를 감추어놓게 하였다. 주선이 명을 받고 형주 수로를 따라 배를 강변에 대어놓고 저는 형주로 들어갔다. 문지기를 시켜서 손부인에게 보하게 하니 부인이 들어오라고 분부한다. 주선은 부인에게 밀서를 올렸다. 부인이 받아서 보니 국태의 병이 위중하다고 써여있다. 울며 물으니 주선이 절하고 아뢴다.

“국태께서 병환이 대단히 위중하셔서 주야로 오직 부인만 생각하고계십니다. 만일에 늦게 가셨다가는 생전에 만나뵙지를 못하실 것 같소이다. 그리고 말씀이 아두를 데리고 오셔서 한번 보게 해 달라 하십니다.”

손부인이 듣고 말한다.

“황숙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멀리 나가셨으니 내 이제 돌아가려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공명군사에게 알린 다음에야 가게 되오.”

주선이 묻는다.

“그러나 만일에 공명군사가 ‘반드시 황숙께 물어보고서 분부를 들은 뒤에야 비로소 배에 오르실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부인이 주저한다.

“만약 말없이 가려다가는 필시 못 가게 막을것이요.”

이때 주선은 재촉한다.

“강우에 이미 배를 준비해놓았으니 부인께서는 곧 수레에 올라 성을 나가시도록 하십시오.”

손부인이 모친의 병이 위급하다고 들었으니 어찌 황황하지 않겠는가! 그길로 일곱살 먹은 아두를 데리고 수레에 올라 형주성을 떠나 배를 타러 강변으로 나가는데 수행하는 인원은 삼십여명이라 각기 칼을 차고 말에 올라 그뒤를 따른다. 부중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공명에게 보하려 했을 때는 손부인이 이미 사두진(沙頭鎭)에 당도해서 막 배에 오른 뒤였다. 주선이 바야흐로 배를 내려고 할 때 강언덕에서 누군지 큰소리로 웨친다.

“아직 배를 내지 말아! 내가 부인을 전송하겠다!”

보니 바로 조운이다. 원래 조운이 순찰하고 막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듣고 소스라쳐 놀라 수하에 다만 기병 네댓을 거느리고

풍우같이 말을 몰아 강변까지 쫓아나온것이다. 주선이 손에 긴 창을 들고서 큰소리로 호통친다.

“네가 누구기에 감히 주모를 막느냐!”

그리고 조운은 군사들을 꾸짖어 일제히 배를 대며 저마다 병장기를 들고 나와 배우에 벌려서게 한다. 이때 바람은 순풍이요, 강물은 또 빨라서 배들이 모두 물결을 따라 내려간다. 조운은 강변을 따라 쫓아내려가며 웨쳤다.

“부인은 가시려건 가십시오. 그러나 다만 한마디 여쭙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선은 들은채 아니하고 오직 배를 재촉해서 앞으로 나갈뿐이다. 조운이 강변을 따라서 십여리나 쫓아가는데 문득 보니 여울에 한척 어선이 비껴 매여있다. 조운은 말에 내리자 창을 들고 어선으로 뛰어올라 사공과 둘이서 힘껏 노를 저어 부인이 타고있는 큰 배를 바라고 쫓아갔다. 주선이 군사를 시켜 활을 쏘게 하였으나 조운이 창을 들러서 막으니 화살이 분분히 물에 떨어진다. 큰 배와 상거가 불과 한기장 남짓밖에 안되자 동오군사들이 창을 들어 어지러이 내지른다. 조운은 곧 창을 배우에다 버리고 허리에 찬 청강검을 쑥 뽑아들었다. 앞으로 내뺐친 무수한 창끝을 칼로 헤치며 동오배를 향해서 몸을 한번 솟구쳐 큰 배로 뛰어오르니 동오군사들이 모두 놀라 자빠진다. 조운이 바로 선창안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아두를 품에 안고 앉았다가 그를 보고 꾸짖는다.

“어째 이리 무례하뇨!”

조운은 칼을 꽂고 말하였다.

“주모께서는 어디로 가시려 하며 어찌하여 공명군사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친께서 병환이 위독하시다고 해서 미처 알릴새가 없었소.”

“주모께서 병문안 가시는데 무엇하러 작은 주인은 데리고 가시는겁니까?”

“아두는 내 아이요, 형주에 두고가면 대체 누가 보아주겠소?”

“그것은 주모께서 잘못입니다. 우리 주공 평생에 혈육이라고는 이 아기뿐이라 소장이 당양 장관파에서 백만적군속으로부터 구해내

였는데 오늘날 부인께서 데리고 가려 하시니 이것이 무슨 도리입니까?”

부인은 노하였다.

“너는 장막하의 일개 무장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감히 내 집 일에 참견이냐?”

조운은 말한다.

“부인께서 가시려건 가시되 다만 작은 주인은 두고 가십시오.”

부인은 꾸짖었다.

“네가 중로에서 함부로 배안에 뛰어드니 필연 반할 뜻이 있는 게다!”

그래도 조운은 물러나지 않는다.

“만약 작은주인을 두고 가시지 않으면 설혹 만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인을 가시게는 못하겠습니다.”

손부인은 시비들을 꾸짖어 그를 때리게 하였으나 조운은 그들을 밀어제끼고 부인의 품에서 아두를 뺏아들자 품에 안고 배머리로 나왔다. 그러나 언덕에 오르자 하니 또한 조력해줄 사람이 없고 군사들을 쳐죽이자 하니 또한 도리에 온당치 않을것 같아서 실로 진퇴양난이다. 손부인은 연방 시비들을 꾸짖어 아두를 뺏아오라 한다. 그러나 조운이 한손에 아두를 꼭 안고 또 한손에 칼을 들고 서있으니 누가 감히 근처에나 가보랴. 이때 주선은 고물에서 키를 잡고 부지런히 배를 몰아 강을 내려간다. 순풍에 강물은 빨랐다. 배는 곧장 중류를 바라고 나간다. 실로 고장난명(孤掌難鳴)¹⁾이다. 조운은 오직 아두를 보호하고있을뿐 무슨 수로 배를 옮겨 언덕으로 올라가 볼것이라. 마야흐로 위급한중에 문득 아래쪽 포구안에서 십여척 배가 주런히 일자로 나오며 배우에서 기를 휘두르고 북을 친다. 조운이 속으로 (이번에는 동오계교에 빠졌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맨앞에 오는 배우에 한 대장이 손에 장팔사모를 들고 서서 큰소리로 웨친다.

“형수는 조카를 두고 가시오!”

원래 장비가 순찰하던중에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유강협구로 왔다가 바로 동오배와 딱 마주치자 재빨리 앞을 막고나선것이였다.

1) 고장난명: 외손바닥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 즉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을 성사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趙雲截江奪
阿斗



그길로 장비는 칼을 들고 동오배로 뛰어들었다. 주선이 장비가 배에 오른것을 보자 칼을 들고 대여든다. 그러나 장비는 한칼에 그를 찍어 넘어뜨리고 그 머리를 들어다 손부인앞에 내어던졌다. 부인이 깜짝 놀라 책망한다.

“아주머니는 이게 무슨 무례한짓입니까!”

장비는 말하였다.

“형수께서 우리 형님을 중히 알지 않으시고 몰래 집으로 돌아가시니 이야말로 무례한것이지요.”

부인이 말한다.

“우리 어머니가 병환이 중하셔서 지금 위급하시대요. 만약 형님에게서 회보가 오기를 기다리다가는 내 일이 랑패가 되겠으니 어떻게 해요? 종내 나를 못 가게 붙드신다면 나는 강물에 빠져죽고말 겁니다.”

부인의 말을 듣고 장비는 조운과 의논한다.

“만약에 부인을 꺾박해서 자결하시게 한다면 이는 신하의 도리가 아니니 아두나 데리고 배로 돌아가세.”

그리고 마침내 부인을 향하여 말을 한다.

“우리 형님은 한나라 황숙이시라 형수께 부족됨이 없으리다. 오늘 가시더라도 만약 형님의 은의(恩意)를 생각하시거든 속속히 돌아오십시오.”

장비는 말을 마치자 아두를 안고 조운과 함께 배로 돌아가 손부인의 다섯척 배를 그대로 놓아보냈다.

후세사람이 시를 지어 자룡을 칭찬하였다.

그 옛날 당양에서 주인을 구하더니
오늘은 몸을 날려 강우로 뛰어든다

배우의 동오군사 담이 다 찢어졌네
자룡의 영용함이 세상에 짝 없구나.

또 익덕을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그 옛날 장판교서 고리눈 부릅뜨고
 한번 호통에 백만대병 물리치던 저 호걸
 오늘은 강우에서 어린 주인 또 구하니
 그 이름 청사에 올라 만세토록 류전하리.

두 사람은 서로 기뻐하며 배로 돌아갔다. 몇리를 가지 않아 공명이 배들을 잔뜩 거느리고 마주 나오는것을 만났다. 공명이 아두를 이미 뺏아가지고 돌아오는것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 세 사람은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돌아갔는데 공명은 몸소 문서를 닦아서 가맹관으로 보내 이 일을 현덕에게 보하였다.

한편 손부인이 동오로 돌아가서 장비와 조운이 강을 막아 주선을 죽이고 아두를 뺏아간 일을 갖추 이야기하니 손권이 듣고 대로 하여 소리친다.

“이제 내 누이가 이미 돌아왔으니 저와는 아무 인연이 없다. 주선 죽인 원쑤를 어찌 갚지 않으리!”

손권은 곧 문무관원들을 모아 군사를 일으켜서 형주 칠 일을 의논하였다. 바야흐로 군사를 출동할 일을 의논하고있는중에 문득 보하되 조조가 군사 사십만을 일으켜 적벽싸움의 원쑤를 갚으려 온다고 한다. 손권이 크게 놀라 형주일은 아직 뒤로 밀어두고 곧 조조 막을 일을 의논하였다. 이때 사람이 보하기를 장사(长史) 장평이 그간 병으로 집에 돌아가있더니 이제 사망하였다 하며 그의 유서를 올린다. 손권이 펴보니 글가운데 자기더러 말릉(秣陵)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권하는 내용이 있었다. 말릉산천에 제왕의 기운이 있으니 속히 그곳으로 옮겨앉아 만세의 기업을 경영하라는것이다. 손권은 유서를 보고 통곡하며 여러 관원을 돌아보고 말한다.

“장자강이 나더러 말릉으로 자리를 옮기라 하였으니 내 어찌 그 말을 좇지 않겠소.”

손권은 즉시 령을 내려 건업(建业)을 옮겨 다스리며 석두성(石头城)을 쌓게 하였다. 려몽이 나와서 계교를 드린다.

“조조군사가 오니 유수수구(濡须水口)에 성을 쌓아놓고 막는것이 좋겠소이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반대한다.

“언덕에 올라가 적을 치고는 그대로 탈벗고 배로 들어갈 텐데 성은 쌓아서 무얼 하겠소?”

려몽은 말하였다.

“군사에는 리로웁고 불리한 것이 있고, 싸움에는 반드시 이긴다는 법이 없소. 만일 졸지에 적을 만나서 보병, 마병이 함께 물리고 보면 미처 물가까지 갈 사이도 없는데 무슨 수로 배에 오른단 말이요?”

듣고나자 손권은 말한다.

“사람이 먼 생각이 없으면 가까운 근심이 있다(人无远虑, 必有近忧)’라고 하였으니 자명의 생각이 심히 멀다 하겠소.”

그리고 즉시 군사 수만명을 유수로 보내서 성을 쌓게 하는데 주야로 일을 몰아쳐서 기한안에 공사를 다 마쳤다.

한편 조조는 허도에 있어 그 위력과 부귀가 날로 더해갔는데 장사 동소(董昭)가 있다가 말을 한다.

“자고이래 임금의 신하된 사람으로서 그 공적이 승상만한이가 없으니 비록 주나라 문왕의 아들로서 자기 형 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카 성왕을 보좌하여 나라를 다스려 큰 공을 세웠다는 주공이나 주무왕의 충신이었던 군략가 강태공이라 할지라도 미치지 못하오리다. 온갖 간난신고를 겪어온 삼십여년에 못도적들을 소탕해서 백성을 도탄에서 건져내고 한황실을 부흥하게 하셨으니 어찌 여느 신하들과 동렬에 계실것이리까? 마땅히 위공의 위를 받으시고 구석(九錫)을 더하셔서 공덕을 표창해야 하오리다.”

대체 “구석”이란 무엇인가?

일은 거마(车马)니 대로(大辂)와 용로(戎辂)가 각각 하나다. 대로는 금거(金车)요, 용로는 병거(兵车)라, 검은 수말 네필이 끄는 수레가 넷, 누런 말이 여덟필이다.

이는 의복(衣服)이니 곤면(袞冕)의 복장에 적석(赤舄)이 붙는다. 곤면은 왕의 복장이요, 적석은 붉은 신이다.

삼은 악현(乐悬)이니 왕의 음악이다.

사는 주호(朱户)니 집에 주호를 세운다. 주호는 곧 홍문(红门)이다.

오는 납폐(納陛)니 납폐로 올라간다. 폐(陛)는 층계다.

록은 호분(虎賁)이니 호분 삼백명, 문을 지키는 군사다.

칠은 부월(鈇鉞)이니 부와 월이 각 하나다. 부(斧)는 곧 도끼다. 월도 도끼의 한 종류다.

팔은 궁시(弓矢)니 동궁(彤弓) 하나, 동시(彤矢) 백, 동은 빨간 빛이다. 로궁(旅弓) 열, 로시(旅矢) 천, 로는 검은 빛이다.

구는 거창규찬(鉅鬯圭瓚)이니 거창 한유(卣)에 규찬을 쓴다. 거는 검은 기장(黑黍)쌀이요, 창은 울창술(香酒)이니 땅에 뿌려 신을 제지시키는것이요, 유는 중술동이(中樽)다. 규찬은 종묘(宗廟)의 제기(祭器)는 선왕을 제사지낼 때 쓰는것이다.

이때에 시중 순욱이 반대해나섰다.

“그것은 안되오. 승상이 본래 의병을 일으켜 한나라황실을 바로잡으셨으니 마땅히 충정한 뜻을 품고 겸손하게 절개를 지켜야 하실것이요. 군자는 사람을 사랑하되 덕으로써 하는 법이니 이러해서는 옳지 않소.”

조조가 듣고 별안간 성이 나서 얼굴빛이 변하니 동소가 다시 말한다.

“어찌 한 사람으로 해서 여러 사람의 소망을 막을것이겠습니까?”

그는 드디어 표문을 올려 천자에게 제의해서 조조를 높여 위공을 삼고 구석을 가하였다. 순욱이 탄식한다.

“내 오늘날 이 일이 될줄 몰랐구나...”

조조는 이 말을 듣고 (네가 나를 돕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한을 품었다.

건안 십칠년 겨울 시월에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강남으로 내려가며 순욱에게 동행할것을 명하였다. 순욱은 조조에게 자기를 죽일 마음이 있는것을 알고있었으므로 병을 핑계하고 수춘에 머물러있었는데 문득 조조가 사람을 시켜 음식 한합을 보내왔다. 합우에는 바로 조조의 친필편지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합을 열고보니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것이다. 순욱은 그 뜻을 짐작하고 드디어 독약을 먹고 죽어버렸다. 이때 그의 나이 원살이다.

후세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하였다.